

‘성경읽기’에 관한 단상

박동열

청명하고 기분 좋은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 아침이다. 사무국장이신 장로님에게 투고를 약속한터라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요즘 마태복음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읽고 있어서 인지, ‘성경 읽기’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이 두서없이 스친다.

1.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표면에 있는 언어형식 혹은 언어표현과 이 형식과 표현 이면에 존재하는 내용 혹은 의미를 막연하게 구분하여 읽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의미와 내용을 인식하게 하는 형식, 즉 언어구조, 유형, 문체 보다는 늘 형식을 넘어선 저자의 생각,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것은 ‘성경읽기’에서 저자가 텍스트 속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늘 표층적인 언어표현을 넘어서 심층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향하여 수직방향으로 깊이 내려간다. 깊이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이며 초월적인 메시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직적 성경읽기는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먼저는 심층 속에는 변하지 않은 순수하고 유일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생각과 연관된 또 다른 하나는, 이 유일한 의미가 성경저자 쪽으로부터 독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온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를 실제저자(the real author)인지 본문 속에 있는 내재적 저자(the implied author)인지 내레이터(narrator)인지 구분해 봐야하고 성령의 영감이 이들 저자와 번역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지를 생각해 봐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의미문제와 맞물려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직적 읽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성경읽기’는 어쩔 수 없이 ‘읽기’의 폐쇄성과 수동성을 야기 시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본문 속에는 오직 하나의 참의미만이 존재하고, 이 의미는 거의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본문 안에 숨겨놓은 유일한 의미를 발견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읽기’ 속에 쉽게 전제된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 적용되어 더 발전하면, 성경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참의미를 정확히 찾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특수한 교육을 받은 소수 집단이며, 선택 받은 그들에 의한 성경해석만이 바른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 성도들은 그 해석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생활을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성경 텍스트 속의 의미에 대한 고정성이란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성경 자체의 정의로 말미암아 더 확고해 질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결과이지만 그 본문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감을 줄 수도 있는 텍스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성경읽기는 단순히 묻혀 있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발굴하여 늘 되풀이 하는 정지된 메시지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영감을 받아 늘 역동적 의미를 새롭게 만들고 의미가 춤을 추도록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성경의 의미는 단일하고 유일한 성격으로서 의미가 아니라, 복합적이며 다층적이고 심지어 종종 모순으로 비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다. 결국, 성경의 의미 캐기란 누구나 적극적인 ‘성경읽기’로 할 수 있는 의미 생성 작업이며 창조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저자에서 독자로 의미가 전달된다는 일방적인 방향에 관한 생각도 역시 이렇게 의미를 고정시킨 결과로 생기는 문제이다. 그러나 ‘성경읽기’는 독자에게로 방출되는 잠

1) 서인석(1984), 성서와 언어과학, 성바오로 출판사, p40-109

재적 의미의 나열이나 단순한 풀이,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의미창출을 위한 독자의 적극적인 '읽기'로 인한 또 하나의 창조활동 자체가 될 수 있다. 성경의 텍스트가 이미 영감을 받은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영감을 주고 있어서, 독자에 의하여 지금도 수없는 간증과 의미를 생산해 내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성경읽기'는 이미 쓰여진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영감을 주는 '성서읽기'는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창출해 내고 있는가? 그것은 깊이의 축, 수직의 축이 아니라 관계의 축, 수평의 축으로서의 '성경읽기'에 접근할 때 효과적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성경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간의 서로 치밀한 관계망 속에 위치된 것이며, 이들 '관계' 혹은 관계로 인한 '차이'가 의미를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읽기'의 즐거움은 안정되어 고정된 의미들을 서로 이어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들 사이의 관계들을 파악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미작용의 분출과 그 분출로 말미암은 의미생성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의미를 단순히 소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된다. 진정한 의미의 '고정'과 의미생성의 '중단'은 로고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분 자신이 참된 의미가 되어 우리에게 가려진 수건이 벗어질 날이 그때이기 때문이다.

2. '수동적' 수용에서 '적극적' 선택으로

하나의 성경 본문은 그것 '뒤' 혹은 '넘어'에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것과의 '사이'에 진정한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것이란 한 본문과 연관된 다른 성경 본문들일 수도 있으나, 독자가 과거에 이미 읽어 뇌 속에 기억, 저장된 텍스트 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이미 이야기 해 준 내용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본문을 읽을 때, 이러한 여러 본문들이 동시에 접촉하게 되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증거 하기도 하여 그 본문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본문이 또 다른 본문을 생성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다. 결국,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본문을 읽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새롭게 짜서 새롭게 쓰는 행위가 되며, 또한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들이 상호 간섭되어 성경은 읽히고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읽기'의 공간은 텍스트 간에 상호간섭이 일어나는 순간이며 텍스트를 새롭게 쓰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텍스트 간의 상호간섭 작용이 일어난 '성경읽기'는 하나의 본문이 맺을 수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생성될 수 있는 의미 가능성 중의 하나를 선택한 결과이다. 단지 하나의 선택의 결과가 '성경읽기'이기 때문에 결코 의미의 '완성'이나 '결론'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읽기'는 늘 미완성의 작업이며 완전한 읽기란 있을 수 없다. 단지 본문을 취하여 새롭고 풍부한 의미작용을 만드는 일이 '성경읽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한 가지 성경해석만을 수용하는 '성경읽기'에 벗어나서 적극적인 '성경읽기'로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선택하는 것은, 땅 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경작하여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참으로 적극적인 용기와 적극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의미선택의 바다에서 새로운 의미를 길어 올리는 것이 무척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3. '말'에서 '문자'로

서구철학이 언제나 말씀(parole)과 목소리(voix)를 중요시하면서 문자 활동을 희생시켰다고 데리다가 지적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패턴에서는 말씀과 목소리의 과잉이 심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설교중심적인 온갖 집회와 예배, 각종 세미나와 성경공부, 교회활동에서 말 중심주의적 신앙형태가 자리를 잡다보니, 성경읽기와 같은 문자 활동은 본질적으로 말과 목소리의 언어활동의 단순한 모방이며, 또 그것을 떠받쳐 주는 부수적, 인위적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음성 안에 들어있는 의미의 현존이 쉽게 기억되고 쉽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가까이 들리는 목소리가 의식의 내면성 속에 있는 의미를 더 투명하게 투영하여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감지되기 때문일까?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주지는 않는다. 신앙이란 삶 속에서 주님과과의 끝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인도에 끊임없이 순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일 등등 다양한 차원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적어도 성경을 읽는 것과 분리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원동력과 영감이 근원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말씀을 읽는 공동체며, 이 공동체가 제 임무를 다하려면 그야말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로 세속화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합이 극에 달한 오늘날 사회에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토해내는 진리에 대해 점점 무디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캠퍼스 안의 대학생들과 거리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왜 그럴까?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틀에 갇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로 제한되고 한계 지어진 것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우리의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무조건 성경을 읽기를 강요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영감으로 씌어진 책이니 단순히 처방약 먹듯이 먹기를 요구한 습관이 전부인 우리들의 모습 때문일까? 수동적 '성경읽기'와 도그마에 얽매어 있는 의미 찾기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시대와 새로운 세대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텍스트의 재해석, 진리의 재해석에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이러한 실패의 처방은 또다시 성경을 '읽어야' 만 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성경을 읽되 자신의 감성에 의존해 읽던 '수직적 읽기'를 지양하고 성경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구조에 대한 치밀한 분석, 내레이터, 등장인물, 시간 및 공간적 배경, 플롯, 이야기 시간과 담론의 시간의 비교 등등 다양한 관점을 면밀히 살펴서, 새롭게 해석된 말씀이 비추고 있는 진리를 담대히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경읽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읽는 자들의 내적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언어학 박사
기학연 실행위원
서울대학교 강사
밝은 교회 전도사